제보 합니다
“지옥에서 천국으로”



불 · 법 · 승 정법 실천도량

연등사(선재불교대학) 도안 합장

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(충해공원 내)
☎ 055)633-6555

안녕하세요?
저는 거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로써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주부로써 제보하고자 합니다.

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끔 절에 스님 법문 들으러 가지만 개종을 하지 않은 기독교인입니다.

제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딸이 10대에 부산 대형병원에서 조현병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는 순간 저희 가정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져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릴 때 현대의학 (당시 완치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음)을 비롯해 종교의 힘까지 빌리고자 했습니다.

유명한 의사, 한의사, 전국의 목사, 전도사, 유명한 대형사찰, TV에 출연했던 무당, 퇴마사, 기 치료사, 최면술 권위자 등등.... 물, 불을 안 가리고 전국을 찾아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나, 결국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희망이 없음을 알고는 아이와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있을 즈음에 지인의 소개로 스님을 만났고 그 때부터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.

제 딸 자랑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.
조현병을 앓았었던 제 딸은 대학 입시를 앞둔 어엿한 숙녀로 자랐습니다(현재 대학 2년생).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공부도 잘하고, 영어, 중국어, 일어 등등....
외국인과의 대화도 능숙하고, 그림도 잘 그리고, 상도 매번 타오며, 또 얼굴도 예뻐서 학교 모델로도 선정되어 인기가 많답니다.
처절한 지옥 속에서 살다가 이제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. 다시는 이런
일을 겪고 싶지 않기에 다른 분들께도 살 수 있는 길을 사례자로써 알려 주고자
이렇게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.

*TV등.... 방송에서 종교를 빙자한 성직자들이 저와 같은 가족전체가 환란에 젖은 이들을 상대로 구원(가피)을 조장하며 사기를 쳤던 내용이 방송 (SBS, KBS, MBC, TV조선, 세븐 등등.....)을 많이도 봤습니다.

그럴 때마다 이 스님은 그 방송국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? 고 하면서..... 그들이 불보살 이라고.....

곰팡이는 음지에 숨길 것이 아니라 양지인 햇볕에 들어내어야 한다고..... 항상 법문시마다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.

*그리고 스님은 비불교적인 것 (사주, 철학, 점, 삼재, 부적, 고기방생, 성지순례, 인등, 큰 등, 작은 등, 대학 합격기도, 승진기도, 재수기도, 철야기도 등등...)은 무당들이 하는 것 이라며 일체 하지 않으시고, 그런 것 할 돈으로 병원과 이웃을 찾아 꺼져가는 생명(수술비가 없어 희망이 없는 이)을 살리는 일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며 **불우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**하라고 하십니다. **오로지 생명보다 중한 게 없으니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.**

막대한 돈을 써가며 멀리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성지순례 같은 것하지 말고, 물고기 방생한다고 부산을 떨지 말며, 그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노부모 · 형제들 찾아 효도와 우애를 다지는 게 **복 짓는 일**이라고, 그럼 우리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 고 하십니다.

어린 아이한테 물어보라면서 물고기 방생이 중한지, 인간 생명방생이 더 중한지..... 제발 좀 부끄러운 짓 하지말자고 하십니다.

*스님은 법회 시 법문을 하시면서도 절대 **절을 받지 않습니다.** 왜 그러시냐? 고 여쭤보면

“여러분이 주인이고, 나는 머슴에 불과하다.”고... 하시면서 경전에 부처님은 한 평생 거지로 사시면서 80세 노구임에도 직접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탁발을 나가셨다고 누차 강조하십니다.

여러분들이 절에 좋은 과일, 좋은 공양물과 심지어 돈까지 불전함에 넣으면 그것을 누가 먹고 누가 씁니까?
그러니 **여러분이 주인이고, 이 스님은 머슴이**기에 절을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의 표시로 절을 해야 한다. 고 항상 말씀 하시면서 지금의 절집 출가자들은 아방궁같은 절집, 고급승용차, 고급 가사장삼 등등 전도된 생활을 하고 있다.” 라고 말씀하십니다.

*스님은 절 창건 시에도 일체 시주금을 받지 않았고, 지금도 그런 돈은 받지 않으며, 절에 필요한 일부 공양물은 지리산인근에 텃밭을 빌려 **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**, 절 집에 필요한 모든 가구나 생활용품은 길에서 주워다 쓰시고, 아직도 양말을 비롯 모든것은 직접 기워서 쓰시면서 아나바다를 실천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서 신도님들 보고 양말을 버리지 말고 기워 신을 것을 종용하며 한 켤레 기워 신었으면 새 양말 한 켤레를 이웃돕기에 보시하라고 하십니다.

*스님께서는 인간 극장이나, 스타킹, 세상에 이런일이 등등 TV등에서 시한부 환우들이 투병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든 수소문 해 찾아가서 일부 신도님들과 같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는 곳 마다 신부, 목사님들은 수없이 다녀갔다는데 **스님은 처음**이라고 같이 동행했던 신도님들이 직접 보고 들은 데로 얘기합니다.

가는 곳 마다 우리스님이 처음이라고.... 말은 대자대비하면서....

*여기 연등사는 다른 종교 집단과 달리 신도회 조직 등등..... 을 절대 만들지 않으며, 무조건 3년만 부지런히 이 스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러 오라는 것입니다.

TV등 방송에서 성직자들의 말잔치, 글잔치에 놀아나지 말라고 하시며..... 그럼 왜 3년이냐? 고 여쭤보면 인간이 3년이면 됐지.....
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..... 인간이 개보다 못해서야 되겠냐? 고 하십니다. 절은 말을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고, 실천행을 배우러 오는 곳 이라고.....

*그래서 2018. 10. 7.에 연등사에서 [부처님 가피(구원)는 있는 것인가?]
{그럼 당신(종교인)은 길에서 환우(조현병, 말기암, 희귀병)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종교인으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.} 라는 주제로.....
시한부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의 일부 발표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즉문즉설의 장을 열었던 것이고, 이에 연등사에 모였던 사례자들이 **종교를 등에 업은 거짓 종교인(수행자)에게 속아 재물과 정신은 물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.**

*저는 늦게 연등사에 왔지만 알고 보니 전국에 수많은 환우들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, 얼마 전에도 담도암 · 담낭암(3기) 환자를 비롯, 각종 말기암 · 전이된 환자(암 1기, 2기는 제외) 들과 희귀병 환우들이 스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남은 것을 직접 많이도 보았습니다. 그 중 크고 작은 절 스님들도 기도 받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.(아울러 모든 자료는 병원 개인 신상 모두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)

스님은 기도 시 신도님들 보는데서 신도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 모두는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.

*지금 불가항력적인 코로나가 삼재의 일환으로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. 이때 연등사 스님과 같이 바른 수행 하시는 분들의 불가사의한 수행력(법력)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. 스님께서는 해마다 **입춘 법문 시 절 집에서 경전 어디에도 없는 띠 삼재 · 거기에 따른 삼재풀이 기도 · 부적은 불교를 망가뜨리기 위해 마왕의 제자(대반열반경 참조) 들이 하는 짓이라고 항상 말씀**하시며, 올 입춘 때도 스님은 법문 시 **불교의 삼재(불교 사전 참조)는 대삼재와 소삼재로 나누며, 대삼재는(화재 · 수재 · 풍재)이며 소삼재는(도병제 · 질병제 · 기근제)이다.**

이는 모두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재앙이며, 시기는 겁 말(말세: 금강경 및 경전 참조)에 일어난다고 듣기 싫을 정도로 자주 말씀하셨고,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질병제의 이 일을 예견하시고, 여기 바른 신행 생활하는 신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.

*이렇게 스님은 바른 정법만을 추구하다 보니 협박 (문자, 전화)을 받고 있습니다.
가끔은 격려의 전화도 오지만, 협박이 더 많답니다.
바른 말씀과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실천하시는 스님! 또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스님께 고개는 숙이지 못할망정 그런 전화를 하다니 이해가 잘 안갑니다.

아울러 기도와 관련해서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들은 주소, 이름 등 연락처를 주시고 동참금은 정성껏 입니다.
동참금 전액은 신문사 지면을 통한 바른 법공양을 알리기 위해 쓰입니다.

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스님의 사상과 바른 소리에 박수를 보내면서 **이 세상에 맑고 밝은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여기 사례자들을 대표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**

***금년 3월20일 ‘sbs궁금한 이야기Y(488회)’에 방영되었던 두 아이엄마의 조현병 사례를 보시고 혹 거처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라며 큰 아들마저 정신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꼭 좀 찾고 싶어 합니다.**

※ 접수처 055-633-6555 (010-3143-5302)
연등사(선재불교대학) | **도 안 합장**
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(우:53211)

사례자 연락처

- **010-3143-5302 (윤 ○○)**
- **010-5699-3173 (박 ○○)**
- **010-8291-9423 (변 ○○)**
- **010-9707-4808 (박 ○○)**
- **011-9143-0098 (김 ○○)**
- **010-4807-6932 (박 ○○)**



❖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